

특별기획전

교신을 위한 연습: 빙빙 힘껏 멍

해피클래식

유성의 역사

'꿈돌이'와 '꿈순이' 이야기

0시축제 퍼레이드

유성의 이모저모

과학·예술·자연, 그리고 '유성'

전민동에서 만난 '지속가능한 내일'

13동 13색, 유성구 마을축제

유성의 인물

박병구 작가

이가희 박사

유성의 대전홍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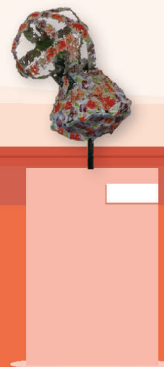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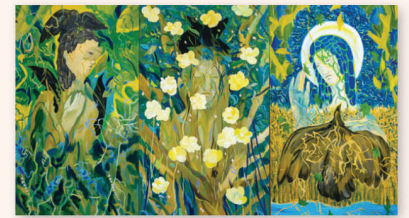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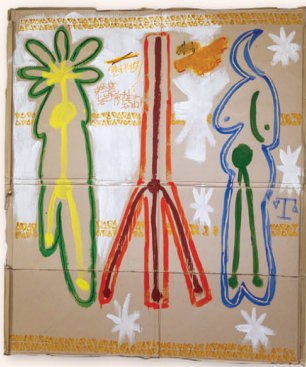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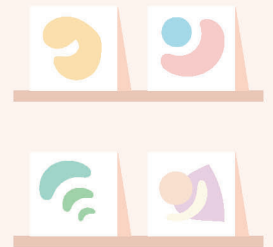
유성 북로드(book road)

더비블리오그래피

독자편지

문화유성

2025 Vol.233
www.yuseong.or.kr.



02



02 특별기획전
교신을 위한 연습; 빙빙 힘껏 멍

06 해피클래식

09 유성의 역사
‘꿈돌이’와 ‘꿈순이’ 이야기
0시축제 퍼레이드

09



17 유성의 이모저모
과학·예술·자연, 그리고 ‘유성’
전민동에서 만난 ‘지속가능한 내일’
13동 13색, 유성구 마을축제

25 유성의 인물
박병구 작가
이가희 박사

09



31 유성의 대전홍보관

34 유성 북로드(book road)
더비블리오그래피

36 독자편지

2025 유성문화원 특별기획 공동전시회

교신을 위한 연습; 빙빙 힘껏 멍

감각과 감정의 경계를 넘나드는 5일간의 실험

유성문화원 이덕성 기자

2025년 유성문화원 특별기획전은 대전 유성구에서 활동하는 신진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 전시회로, 올해는 「교신을 위한 연습; 빙빙 힘껏 멍」이 열렸다. 이 전시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무심히 버려진 대상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며, 관람객에게 시각적·촉각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했다.



전시 개요

- 기간: 2025년 8월 18일(월) ~ 8월 22일(금)
- 장소: 유성문화원 1층 갤러리 유성
- 참여작가: 심성훈, 양태훈

전시 의도와 작가의 메시지

유성문화원 손새롬이 과장은 이번 전시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번 특별기획 전시는 유성구에서 활동 중인 신진 작가분들과 함께, 지역 내의 폐기물과 환경 문제를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전시 제목 ‘교신을 위한 연습; 빙빙 힘껏 멍’은 작가들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거쳤던 감정의 흐름을 담고 있어요. 머릿속이 빙빙 돌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영감을 힘껏 표현하다가, 때론 ‘멍’하니 멈춰 서는 순간들. 그런 과정이 곧 창작의 본질이자 예술과 관람객 사이의 ‘교신’의 순간이죠.”라며 “이 전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관심받지 못하는 것들을 조명합니다. 유성 지역 곳곳을 직접 탐색하며 작가들이 수집한 폐기물, 버려진 상자, 철조망, 펄프 종이 등 다양한 재료들이 작품의 재료가 되었고, 일부는 밀가루와 물감을 섞은 친환경 재료로도 표현됐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작품은 단지 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된 존재들의 의미를 되살리는’ 철학적 태도를 담고 있다.

제목이 말하는 것들

‘빙빙’, ‘힘껏’, ‘멍’. 이 세 단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몸의 움직임과 정신의 상태를 동시에 암시하는 은유적 언어다. 관람자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향을 잃고, 감각이 흔들리며, 결국 ‘멍’이라는 상태에 도달한다.



이 전시는 ‘예술적 교신’을 시도한다.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감정과 기억, 무의식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감각적인 교감이다. 즉,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교신’을 연습하는 시간인 것이다.

전시 구성

전시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 빙빙** 회전하는 구조물, 반복되는 영상, 순환하는 사운드. 관람자는 중심을 잃고, 주변을 맴돈다.
- 힘껏** 강렬한 색채, 물리적 저항을 유도하는 설치작품, 관객의 참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
- 멍** 텅 빈 공간, 느린 호흡, 침묵의 미학. 관람자는 멈추고, 바라보고, 내면을 응시한다.

참여 작가들은 유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로, 각자의 방식으로 ‘교신’을 시도한다. 어떤 이는 언어를 해체하고, 어떤 이는 몸의 움직임을 기록하며, 또 다른 이는 디지털 신호를 감성으로 번역한다.

주요 작품 및 특징

◎ **심성훈 작가: 「숲의 보행자」 시리즈, 「숲의 영혼들」 등.**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을 숲이라는 상징적 공간 속에 담아내며, 신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회화를 선보였다. 작품은 숲을 통해 소멸과 재생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 **양태훈 작가 인터뷰 내용: 「나무에 나무」 시리즈 등.**

도시 폐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펼쳤다. 버려진 종이상자, 철망, 펄프 등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물성에 예술적 숨결을 불어넣었다.

특히 일부 작품은 면장갑을 착용하고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구성된 체험형 전시로, 시각뿐 아니라 촉각을 통해 예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두 작가 모두 대전 지역의 젊은 예술가로, 지역성과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관람객의 반응

“단 5일간의 전시지만, 지역 작가들의 깊은 철학과 감각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시각뿐 아니라 촉각, 감정까지 자극하는 전시였다.”
“작품을 ‘보는 것’에서 ‘교신하는 것’으로 확장시킨 전시회였다.”

유성문화원이 던진 질문

이번 특별기획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의 실험이자, 하나의 제안이다.

예술은 교신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교신을 연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빙빙 힘껏 멍』은 그 질문을 던지며, 예술과 삶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첫 번째 연습장이 되었다.

2025 우리동네 해피 클래식

행복을 전하는 음악과 이야기가 함께합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우리 동네를 찾습니다.

유성문화원 한성희 기자



우리동네 해피클래식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지역 주민들이 클래식 음악을 공연장이 아닌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무료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동네 해피 클래식은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5년은 7월과 11월 상반기 하반기에 나뉘어서 대전 동구문화원, 대전 중구문화원, 대덕문화원, 유성문화원 대전 4곳의 문화원에서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우리동네 해피 클래식은 대전 시립교향악단이 함께 합니다. 대전 시립교향악단은 1984년 창단 이후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과 다채로운 기획을 선보이며 대전 시민에게 음악으로 행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피 클래식'을 비롯하여 문화 소외 계층, 기업체, 각종 기관, 학생을 위한 연주회 등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하며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7월 18일 오전 11시에 유성문화원에서 대전시립교향악단이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해피 클래식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유성문화원 7월 해피 클래식은 유치원생 90명이 함께 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유성문화원 2층 다목적실은 공연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연주가들이 앉을 의자와 악보대가 설치되어 있고 아이들이 관객석을 빼곡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무대에 악보대와 악기가 놓여있으니, 아이들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해설과 진행을 맡은 이진옥 피아니스트가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회에 함께하는 악기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시간으로 첫인사를 하였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점에 대해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크고 소리도 굵고 낮은 소리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악기 소개를 해준 연주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산토끼 노래를 악기로 소리 내어 인사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토 노래로 인사하는 오보에 악기 소리에 아이들 즐겁게 웃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다양한 악기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 대한 감각이 더욱 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를 쫑긋하며 악기가 나는 소리로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날 연주된 곡은 모차르트, 바흐, 헨델의 클래식 곡부터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송 메들리까지 다채로웠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흐르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자연스럽게 음악에 몸을 맡겼고, 오보에의 솔로곡, 바이올린과의 협주곡 등 다양한 조합의 연주를 통해 악기마다의 소리를 비교하며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무대를 바라보며 집중했고, 작은 몸짓 하나에도 진심 어린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들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우리동네 해피 클래식'. 관객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호흡했던 무대는 그 어떤 공연보다 따뜻하고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Interview


피아니스트 이진옥

대전시립교향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해설 및 진행

♪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할 때 특별히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지 있을까요?

아이들 대상으로 공연할 때는 곡 선택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곡과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은 곡들을 선정합니다. 항상 유념 해두는 것이 프로그램 선정입니다.

♪ 아이들과 공연할 때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아이들도 태고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음악 수준이 높습니다.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절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떠들지 않고 음악에 집중하며 기본 예절을 잘 지킬 줄 안답니다.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공연이 중단된다거나 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연을 접하면 음악과 예술을 친근하게 느끼게 된답니다. 아이들에게는 실제로 가까이 눈앞에서 악기가 연주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 혹시 공연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공연하고 싶은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신지요?

장소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음악회를 접하기 어렵거나 음악을 듣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분들을 찾아가서 음악회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에 듣는 클래식 음악은 하루를 더 행복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나니 우리 동네 해피 클래식 음악회에 참석했던 아이들의 기분이 좋아 보이며 한결 밝아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유치원의 일과 시간이 아닌 밖으로 나가 유치원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음악회에 참석하여 클래식 음악을 들었던 경험. 선물에 따라 웃고 손뼉 치며 음악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꿈돌이’ · ‘꿈순이’이가 태어난 곳은 우리 고장 ‘유성’입니다.

유성문화원 이기봉 해설사



유성이는 아빠에게 요즈음 인기가 만점인 우리 고장 대전의 캐릭터인 ‘곰씨패밀리’에 관심을 보이며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어요. 아빠는 유성이에게 어떤 이야기부터 들려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꿈돌이’와 ‘꿈순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고향이 어딘지부터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성이의 손을 잡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을 찾아갔어요. 유성이는 아빠가 왜 엑스포과학공원 왔는지 궁금했어요.

대전엑스포 이야기

“아빠! 이곳이 어떤 곳이야?”

아빠는 유성이에게 먼저 대전엑스포 이야기부터 들려주기로 했어요.

“유성아! 이곳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큰 행사가 열렸는데, 그 행사의 이름을 ‘대전엑스포 ’93’라고 불렀어. 1993년에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는 8월 7일에서 11월 7일까지 93일간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열렸는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지 불과 5년 만에 개최된 국제행사로, 108개국·33개 국제 기구가 참가하였으며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꼴인 1,400만 5,808명이 방문하였단다.”



“유성아! 재미있는 이야기해 줄까?”

“대전엑스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떠올리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 지금은 없어진 남문광장 매표소 앞에서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 전시관과 행사장을 향해 달리던 모습, 구름 떼 같은 입장객, ‘도우미’¹⁾의 인기, 지금은 유명 방송인으로 널리 알려진 씨름선수 강호동씨가 개장 둘째 날인 8월 8일에 악수 많이 하기 기네스 기록에 도전해서 8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2만 8,233명의 관람객들과 악수를 나누어 그의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단다.”²⁾

한빛탑

“저기에 우뚝 솟아있는 탑은 대전엑스포 때 이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상징 조형물로, ‘지혜로운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잇는 한 줄기 빛’이라는 뜻에서 한빛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학과 우주를 모티브로 하여 조형화한 전망대란다.

한빛탑은 경주에 있는 첨성대의 모양을 기초로 하여 만든 엑스포의 중심 건물로, 높이는 엑스포 개최년도인 1993년을 상징하는 93m, 화강암으로 만든 외벽의 벽돌 수는 1993개란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뾰족 고깔에 도넛을 끼워둔 모양으로 첨성대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외벽을 잘 보면 첨성대의 계단식 회색 벽돌을 모방했음을 알 수 있는데, 둥그런 전망대는 현재를, 뾰족한 원뿔 모양의 첨탑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어.

한빛탑의 전망대는 지상에서 39m에 위치하고 있는데, 완공 당시부터 2021년 대전 사이언스 콤플렉스가 완공될 때까지 대전광역시에서 가장 높은 탑이었다. 현재는 이 전망대에 무대를 만들어 음악회, 연극, 연극, 전시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곰씨패밀리’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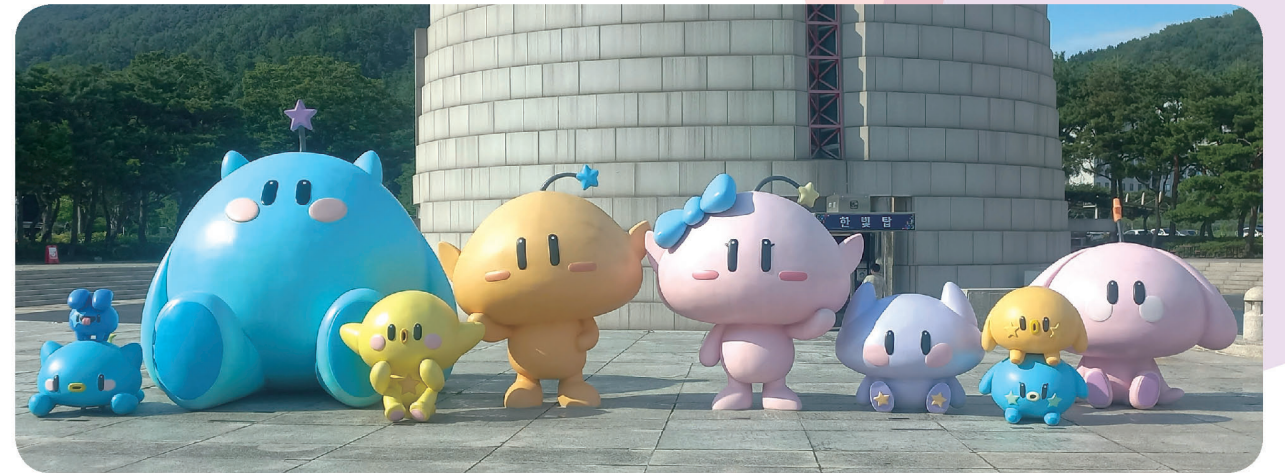
“이곳에서 엑스포가 열릴 때 미래 주인공인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는 뜻에서 노란 몸통·둥그란 눈·머리에는 별 안테나를 단 우주인처럼 생긴 아기 요정 ‘곰돌이’와 분홍색 몸통에 머리에는 예쁜 리본을 장식하고 속눈썹이



출처 : 경향신문, 2025. 8. 18에서

1) ‘도우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대전엑스포를 통해서다. 도우미가 ‘도움’에 사람을 뜻하는 단어에 접미사 ‘-이’를 붙여 만든 단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당시 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 공식보고서는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우아한 미인’을 줄여 ‘도우미’라고 소개했다. 단순한 표현만 봐서는 지금의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도우미의 인기는 엄청나서 엑스포 도우미 모집 광고가 나가자 1주일 만에 2만 2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 경쟁률 30대 1을 기록한 것만 봐도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출처 : 대덕특구 50주년 스토리북, 어서와~ 대덕 특구는 처음이지? 20쪽, 대전광역시, 2023년 10월 13일)

2) 대덕특구 50주년 스토리북, 어서와~ 대덕특구는 처음이지? 20쪽, 대전광역시, 2023년 10월 13일



있는 ‘곰순이’가 행사 공식 마스코트인 캐릭터로 태어났지. 그때 마스코트였던 ‘곰돌이’와 ‘곰순이’가 이제는 가정을 이루어 다섯 자녀와 함께 하는 아빠·엄마가 되었다. 우리는 이 가정과 곰돌이가 외계행성에서 초대곰돌이의 동생 ‘곰둥이’, 곰씨 가족이 사랑하는 외계 반려동물 ‘몽몽이’³⁾, 친구인 ‘네브’⁴⁾, ‘도르’⁵⁾를 ‘곰씨패밀리’라고 부르고 있지.⁶⁾ 금년 8월에 개최되었던 ‘영시축제’ 때에는 ‘곰돌이’가 고향에서 3째 자녀 ‘곰누리’와 ‘감필라고’ 별의 왕과 왕비인 부모님 곰돌이 부모님⁷⁾을 모시고 왔단다.⁸⁾”

‘곰돌이’와 ‘곰순이’의 고향

“그러면 유성아! 유성이는 고향이 ‘유성’이듯이 ‘곰돌이’와 ‘곰순이’도 고향이 있지 않을까?”

“유성이는 ‘곰돌이’와 ‘곰순이’의 고향이 어디일 것 같아?”

“대전엑스포가 개최되었던 8월은 한창 더위가 무르익는 여름철이야. 이때 우리가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은 여름철 별자리들이야.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름철 별자리인 ‘백조자리’⁹⁾는 은하수 위에서 날개를 펼친 백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북쪽 하늘에서 볼 수 있단다. ‘백조자리’에는 ‘알비레오’, ‘사드르’, ‘데네브’ 등의 별이 있는데, 한국천문연구원 박석재 전 원장님이 곰돌이의 모험을 그린 과학동화에서 백조 머리의 부리 부분에 있는 흰 별을 일명 ‘곰돌이 별’이라고 부르는 ‘알비레오’ 별인데, 이 별을 돌고 있는 ‘감필라고’ 행성에서 살던 ‘곰돌이’가 대전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에 태양계의 지구에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¹⁰⁾”

3) 몽몽(반려견) : 원래는 긴 꼬리가 멋진 혜성 늑대였으나 지구에 오면서 작은 강아지가 되었다.

4) 네브(외계행성의 친구) : 별자리 백조자리 꼬리에 위치한 데네브 별 행성 출신

5) 도르(소꿉친구) : 별자리 백조자리 가슴에 위치한 사드르 별 행성 출신, 곰부부의 오랜 친구

6) 출처 : 일류도시 대전 2024년 2월호, Vpl. 239

7) • 곰돌이의 아빠 ‘곰돌이’

- 감필라고를 다스리는 왕이자 곰돌이의 아버지

- 색깔은 황금색으로 연갈색 수염이 달려 있고 자홍색 망토를 메고 있으며, 자홍색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으며 끝부분에 연보라색 별이 있다.

-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곰돌이의 엄마 ‘곰순이’

- 감필라고를 다스리는 왕비이자 곰돌이의 어머니

- 색깔은 은색으로 남색 망토를 메고 있으며, 하늘색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으며 끝부분에 연분홍색 별이 있다.

- 어린 곰돌이에게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가르친다.

8) 출처 : 일류도시 대전 2025년 9월호, Vpl. 258

‘곰씨패밀리’의 인기

“요즈음 ‘곰씨패밀리’ 인기가 우리 고장 대전을 널리 널리 알리고 있어. 지난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원도심인 대전역 앞에서부터 옛) 충청남도 도청까지의 중앙로 일대에서 열린 ‘영시 축제’ 때에는 ‘곰돌이’·‘곰순이’의 ‘곰씨패밀리’를 마스크트로 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었다. 또한, 판매된 지 두 달 만에 75만 개가 팔릴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곰돌이 라면’을 시작으로, 대전기성농협이 유통하는 지역 쌀을 원료로 하여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인 ‘대전주조’와 함께 ‘곰돌이’를 활용한 ‘원곰돌이 막걸리’, 영시축제 개막과 동시에 9,395박스가 완판된 ‘곰돌이 호두과자’ 등 ‘곰돌이’를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많은 분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 이뿐만 아니라 대전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트래블라운지에서는 하얀 셔츠에 ‘곰돌이’·‘곰순이’ 문양을 새기는 체험과 머그컵을 만드는 체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곰씨 패밀리’를 소재로 하여 많은 관광기획상품도 개발되고 있단다.”



마무리

“유성아! ‘곰돌이’와 ‘곰순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살고 있는 유성에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태어난 ‘곰돌이’와 ‘곰순이’가 이제는 우리 대전을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데 어때 자랑스럽지 않니?
지금까지 우리 고장 대전을 많은 사람들은 ‘노잼도시’라고 이야기하여 왔는데, ‘곰돌이’와 ‘곰순이’의 ‘곰씨패밀리’를 통하여 ‘노잼도시’라는 인식을 바꿀 수 있었으면 해. 언제든지 대전을 찾아가면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해서 무언가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
유성아!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거리를 찾아갈까?
오늘은 이만 안녕!”

참고자료

- 일류도시 대전 2024년 2월호, 2025년 6·9월호(Vol. 239, 255, 258)
- 대덕특구 50주년 스토리북, 어서와 ~ 대덕특구는 처음이지? 20쪽(대전광역시, 2023년 10월 13일)
- 2023 대전시립박물관 역사특별전 ~ 30년의 기억, 대전엑스포 '93(대전시립박물관, 2023년)
- 대전의 숨겨진 이야기와 만나는 2023 대전스토리투어(대전체험여행협동조합, 2023년 5월)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식 블로그
- 네이버, 나무위키·위키백과
- 대전곰씨 이야기(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충청투데이, 2024. 3. 21)

9) 북반구 은하수 북십자성 백조자리(Cygnus)는 그리스신화의 제우스가 스파르타 왕의 아내 레디를 유혹하기 위해 헤라의 눈을 피하고자 백조로 변신한 데서 유래되었다.(대전곰씨 이야기, 권득용 대전디자인진흥원장, 충청투데이, 2024. 3. 21)
10) 출처 : 일류도시 대전, 2024년 2월호 7쪽/곰돌이 고향 <감필라고> 행성이 <대전 0시축제>에 멋다! - 패밀리 테마파크를 가다(대전평생교육진흥원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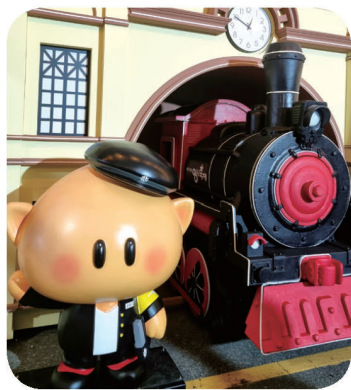
마을 민속놀이와 0시축제

유성문화원 강숙희 해설사

대전의 정서가 깊숙이 담겨있는 대중가요가 2025년 8월 8일 축제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졌다. 우리지역, 대전부르스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담아 노래로, 노래가 축제가 되어 다가왔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서이기에 축제 한마당 잔치를 벌였어도 서툴지 않고 바로 다가갈 수 있었다.

축제는 과거존, 현재존, 미래존으로 나누어 구성되었고, 각각의 시간여행 속의 특별한 이벤트들이 축제를 흥분하게 하고,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중 눈에 띄는 나만의 포인트를 만든다면 과거존, 추억의 기차여행 스토리 체험과, 기차마을로 추억을 소환하기에 충분한 가게이름 “새마을식당” 00레코드, 대전역 매표소를 보며, 지난 시간을 소환하기에 충분했다. 내 어릴 적 동네가 그대로 있었다. 그곳 축제장에..
나이가 어느 정도 헤아려진다면 그 축제장 시간여행도 해 볼만하다고 추천하고 싶다. 특별한 날에만 만날 수 있으므로.
대전역에서 옛 도청 사이 시간여행 시작점은 대전 엑스포 마스크트 곰돌이 모형이 설치되어 있는 대전역 앞에서 시작되었다.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 모형

대전 시민이면 익숙한 꿈돌이, 한빛탑이 있는, 현재 존에서는 어떤 모습이 연출될까 하는 순간, 펼쳐진 광경, 주간에도 잘 보이는 메쉬 LED 고화질 시스템의 4방향 360도 야외 무대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재 모습으로 다가와 있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새삼 놀래면서 무딘 내 일상을 돌아보고 있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AI를 생활화하는 세대와, ETRO라고 표현하는 근현대세대를 아우르려는 혼돈을 겪고 있지만, 이 두 세대 간의 노력들을 축제 마당에서만큼은 무대의 노래와 퍼포먼스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면 미래 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궁금했다.

늘 희망을 품고 있는 미래여정, 첨단과학도시를 꿈꾸는 대전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으로 만난 것은 1993년 엑스포의 마스코트 꿈돌이가, 꿈씨패밀리로 변해 있었고, 미래의 첨단 이미지 화면들이 휘돌아치며 과거, 현재, 미래의 테마를 또 다른 이미지로 표현되 있어서 놀라웠다.

드디어, 기다리던 개막퍼레이드 시간이 되었다.

퍼레이드는 축제의 주제에 맞춰 과거, 현재, 미래시간 순서대로 공연팀들의 거리공연이 시작되었다. 블랙이글스라는 비행기 쇼가 하늘의 분위기를 내려주었고, 육군의 취타대가 행군하고, 축캉스퍼레이드카가 지나고 화려한 복장의 해외 무용단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대전의 캐릭터 꿈씨가족에 이어, 증기기관차, 카이스트의 4족 보행 로봇이 지날 땐 아이들이 유난히 소리 지르며, 환호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모습인가?!

어린이스탠트 치어리더, 수소프트램 퍼레이드카가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관심사, 길놀이 팀으로 묶인, 마을 민속팀들이 하나하나 주제를 담은 동작으로, 소리로 농악기와 더불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민속놀이라는 이름으로 마을에서 행해지던 놀이마당은 축제장 속에서 새롭게 선보이며 플래카드, 깃발로 각자의 색깔을 표현하면서,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있는 동작들이 관객의 또 다른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중 우리 유성구 마을 민속놀이인 ‘구죽동 바구니 둥구나무제



구죽동 바구니 둥구나무제



보존회’라는 플래카드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우리 동네 민속놀이라 그런지 나도 모르게 더 애착을 갖고, 한껏도 놓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우리 마을 축제로만 알고 있던 둥구나무제(목신제)는 매년 정월보름때면 온 마을 주민과 제를 주관하는 참여자와 함께 1990년부터, 수령 500여년을 지켜온 마을 터주, 느티나무를 신목으로 여기고 둥구나무제를 지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유성구 대표적인 정월대보름 행사로 자리 잡으며, 둥구나무제 보존회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지켜지며 마을 주민들 화합의 장으로 마을의 안녕과 주민들의 소원을 담아 느티나무 앞에 상을 차려 기원하던 그 장면의 엄숙함은 내려놓은 채, 축제 마당의 퍼레이드로 마주하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뿔과리 흥과 어울리며 참여한 공연자들도 바라보고 있던 관중들도 다 함께 으쓱으쓱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도 낯설지도 않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놀이마당은 이런 것이라라고 보여 주는 것 같았다.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그 뒤를 이어 만장이 휘날리며 상복을 입은 출연자들이 등장했다. 바로 ‘전민동 산소골 상여놀이’를 연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었다. 상여 놀이 선입견을 가지면 축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상여놀이 본연의 모습이 아닌, 축제 속에 승화한 놀이마당 그 자체, 그대로 연출되었다.

전민동 산소골 상여놀이는 조선 중기 이산진 병마만호를 지냈던 노세신 장군의 장례식 때 행해진 것이 마을 축제로 발굴 된 것이다. 노세신 장군의 장례식은 무려 13일장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장례 10일째 되는 날부터 ‘대뜨리’라고 하는 장례행사를 매일 저녁 마다 3일 동안 하였다.

‘대뜨리’ 내용을 살펴보면 죽은 자의 한을 풀기 위한 한풀이 춤을 추었고, 상여꾼들이 발을 맞춰 헛불 7개를 앞세우고 일가 친척 집을 순회하였다. 요령잡이는 상두가로 상여를 이끌고 장군이 남긴 유언 ‘적덕’을 세 번 전하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전민동 산소골 상여놀이



상가로 돌아오면 유족은 상여를 맞이해 제물을 차려 놓고 곡을 한 다음 상여꾼들을 대접했다. 그러면 상여꾼중 누군가가 벼싹을 누군가에게 썬어 말을 만들고 상주를 희롱하여 웃게 만들어 슬픔을 잠시 잊게 만든다. 그다음은 놀이패가 나와 소경과 종과 각시 사이에 얹힌, 삼각관계 이야기를 촌극으로 꾸며서 상주와 문상객을 웃게 하였다. 극이 끝난 다음은 상두가 복춤, 허튼춤, 병신춤을 연출했고, 요령잡이의 익살로 대뜨리를 끝냈다. 이런 내용을 놀이 문화로 승화 시켜 전혀 낯설지 않은 흥이 연출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상을 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의 의지가 깃들여 있는 숭고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상여놀이가 현대판 놀이문화로 거듭날 수 있지 않았을까? '대뜨리'라는 문화를 축제 속에 녹여 내는 놀이마당 참여자들 또한 대단한 열정과 긍지를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전민동 산소골 상여놀이’의 깊은 뜻이 현대판 축제장에서도 빛을 발하여 관중을 사로잡고 감정의 소통을 이끌어내며, 축제장을 더한층 열광하게 만들었다고 할수 있다. 슬픔의 외적 감정을 기쁨과 흥분, 내적 감동으로 이끌어내는 선두의 요령잡이 센스와 분위기를 타는 감각은 마을민속축제만이 할 수 있는 정서가 아닐까?

‘0시 축제’가 도시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과거의 정서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미래를 구분 짓는 것도 아닌, 과거 속에 현재, 미래 속에 과거가 있는 우리 삶을 표현하는 축제장 속에 마을 민속 축제의 뉘가 아닐까 확인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마을민속축제는 우리 삶과 그 속에 녹아 있는 우리만의 정서가 있기에, 현재 우리가 즐기고 지키다가,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마을 유산으로 남겨지기를 마을지킴이 한사람으로 기원해 본다.

※ 참조 : 송백현·김용관, 『선비교을 유성이야기』, 유성문화원, 2010.

대전 관광객 증가율 1위... 유성 카페로 알아보는 ‘대전 열풍’

과학·예술·자연이 어우러진 감각적인 도시,
그리고 ‘유성’

유성문화원 조윤서 기자



한때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던 대전이 2025년 국내 여행 트렌드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전을 찾는 발걸음이 부쩍 늘어나며, 각종 데이터에서도 대전 관광의 성장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5월, 소비자 여행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국내 여행지 점유율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전은 2023년 대비 여행객 비중이 1.0% 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0.6%p), 부산(0.3%p), 대구(0.4%p) 등 주요 도시를 앞선 수치이자, 제주(-2.0%p), 강원(-1.4%p) 등 기존 인기 관광지의 하락세와 크게 대비되는 성과이다.

온라인 여행기업 놀유니버스가 발표한 ‘올해 황금연휴(5월 1~6일) 숙박 예약 통계’에 따르면, 대전 예약 건수는 2024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4년 지역별 방문객 통계’에서는 대전 방문객이 총 8,463만여 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 ‘노잼도시’로 불리던 대전은 이제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여행 수요를 끌어모으고 있다. 특히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전만의 감성과 개성을 담은 공간을 찾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대전 카페 투어 문화가 주목받고 있다.

이제 카페는 더 이상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 색다른 경험과 지역 특색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여행 코스’로 자리 잡으며 도시 관광의 중요한 거점이 됐다. 대전의 카페는 주민들의 일상 쉼터이자 관광객의 특별한 장소가 되어주고 있다. 이번 기사에 소개할 대전 유성구의 대표 카페 두 곳은 독특한 공간 구성과 인근 관광 자원이 어우러져, 독자들이 대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장소가 되어 줄 것이다.

첫 번째 카페는,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한빛탑 제1 전망층에 위치한 ‘한빛스퀘어 카페비노’다. 대전의 주요 랜드마크인 한빛탑에 위치한 이곳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빛스퀘어’라는 이름은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영감을 받아, 카페가 대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카페는 1993년에 개최된 엑스포(EXPO)의 상징인 한빛탑에 들어선 만큼, 내부 인테리어 역시 과학도시 대전을 반영해 우주선을 탄 듯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또한 고층 전망대에 위치해 낮과 밤 모두 엑스포 공원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커피, 아이스크림, 호두강정이다.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깊은 풍미의 커피, 원액만 사용해 깔끔한 맛의 아이스크림, 수제로 만든 호두강정은 대전의 향토적 매력을 더해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또한 이곳에서는 음악 공연, 갤러리, 현악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한빛스퀘어 카페비노 대표님은 “가게 운영 외에도 현악기 제작에 힘쓰고 있다. 이는 장애인 분들의 일자리로 이어져 지역 상생의 기반이 된다. 문화 예술만큼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카페가 예술인과 시민들이 다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카페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제공해 지역 예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문화의 연대가 주는 힘과 따뜻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카페 인근에 방문하기 좋은 명소로는 엑스포과학 공원, 한밭수목원, 국립중앙과학관, 성심당 dcc, 대전 예술의전당, 수변문화원, 각종 미술관과 박물관, 문화센터 등이 있다. 이곳을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은 과학과 예술을 동시에 체험하고, 인근 산책로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카페를 중심으로 하루 일정만 계획해도 대전의 다양한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카페는 대전 유성구 원신흥남로 42번 길 19-22에 위치한 ‘조은차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름처럼 차를 매개로 한 카페는 쉼과 여유를 제공하는 곳으로, 대전에서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카페의 가장 큰 매력은 ‘정성과 인내’다. 차를 우려내는 시간을 기다리며 방문객은 느림의 미학을 배워갈 수 있다. 카페 내부는 차분한 우드톤 인테리어와 다양한 다기세트가 전시돼 있으며 손님들은 직접 마음에 드는 다기를 골라 차를 즐길 수 있다.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는 보이차와 팔빙수다. 그중 말차 팔빙수는 은은한 단맛과 적당한 썹싸름함으로 인기가 높다. 조은차 마시는 사람들 대표님은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유기농·무농약 원칙을 지켜 재료를

선별하고 있다”라며 “설탕은 유기농, 소금은 10년 간수를 뺀 천일염을 쓰는 등 좋은 재료만을 고집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심한 철학이 곧 카페의 차별화된 강점이 됐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차잎을 구매해, 대전이 가진 차분하고 잔잔한 매력을 담아 돌아가기도 한다. 대표님은 “이곳에서 편안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내, 대전에서의 포근한 기억이 오래 간직되길 바란다”라고 전해 카페의 따뜻한 진심을 전했다.

더불어 카페 인근에 방문하기 좋은 명소로는 대전시립박물관, 갑천생태 호수공원, 달레기근린공원, 원신흥도서관 등이 있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 코스와 다양한 문화 공간은 차분한 찻집에서의 여운을 이어, 고요하게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코스다.

앞서 소개한 두 카페의 공통점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대전의 문화·휴식·지역성을 담은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카페는 지역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공간이자, 대전이 지향하는 문화·관광 융합 도시의 상징으로 자리했다.

대전은 이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매력적인 도시로 거듭났다. 대전이 과학, 예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여행지로 떠오른 배경에는, 지역의 일상과 관광을 연결해 준 카페가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며 서로 소통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체감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유성은 대덕연구단지과 과학기술 클러스터, 한빛탑, 엑스포과학공원, 한밭수목원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품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최적의 장소다. 낮에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첨단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저녁에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대전의 야경을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유성의 다양한 문화공간과 감성적인 카페들은 앞으로도 대전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대전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일상과 여행을 잇는 문화의 다리는 앞으로의 대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자, 더 많은 이들이 대전을 찾게 만드는 따뜻한 초대장이 될 것이다.



전민동에서 만난 ‘지속가능한 내일’

신음하는 지구 ... 살리고 싶다

유성문화원 신순남 기자



입추가 지나고 절기상 더위가 꺾인다는 ‘처서’(8월 23일)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22일(금), 낮 기온이 여전히 33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오전 10시 30분, 유성구 전민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권태기) 2층 대강당에서는 ‘기후 위기 시대, 지구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김종남 지구와 사람 연구소 소장의 「다빛」 강연이 열렸다.



김종남 소장(지구와 사람 연구소)

59회를 맞이한 「다빛」 강연은 전민동 배움 공동체 「다빛」(회장 정동수)에서 매월 진행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으로, 강연자와 회원들이 함께 지식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이 강연은 ‘2025 유성구 유성 매직 마을 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김종남 소장은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후, “지난 7월 17일 파키스탄에는 단 10시간 만에 1,400mm의 폭우가 쏟아져 63명이 목숨을 잃었고, 8월 9일에는 유럽 전역에 45도 폭염이 몰아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라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이러한 자연 재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기, 빙하, 생태계 등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급격하고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인간의 활동이 초래한 기후변화는 지구 전 지역의 날씨와 극한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꼽았다. “온실가스는 대기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산업과 교통, 발전소, 가정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며, “무분별한 산림 훼손은 탄소 흡수를 방해하고, 가축의 되새김질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탄소중립’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상태를 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산업계, 국제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 전기·수소차 이용, 비료 사용 절감, 친환경 농법 확대, 산림과 습지 복원 등 일상 속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실천적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하자, 60여 명의 참석자들이 큰 박수로 호응했다.

이날 강연을 경청한 이진옥(78) 씨는 “절기상 처서인데도 열대야가 이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홍수와 산불이 빈발하는 현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강의를 들으며 결국 모든 원인이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며, “이제라도 우리가 환경 보호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등 실천을 다짐하게 됐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다빛」 강연은 전민동 주민들이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주제를 가까이에서 접하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유성 지역에서 이처럼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지역공동체가 가진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의 배움과 나눔이 이어져 주민들의 의식과 실천이 함께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13동 13색’ 유성구,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마을 축제

유성문화원 김태균 기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에 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유성구 마을 축제를 소개한다. 오늘 소개할 대전 유성구 마을 축제는 조금 더 특별하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기 때문인데, 8월 30일(토)부터 10월 25일(토)까지 13개 동 전역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마을 축제는 동별 고유 특성과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성구 마을 축제 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민동에서 ‘제22회 한여름밤 마을축제’(8월 30일)가 열렸고, 이어 노은3동 ‘노은3동 마을축제’(9월 12일), 관평동 ‘13회 관평뜰축제’(9월 12일), 노은2동 ‘노은2동 한마음축제’, 온천1동 ‘들썩들썩 온천마을 축제’(9월 13일), 학하동 ‘학하동별밭음악축제’(9월 13일), 온천2동 ‘온이사랑 마을축제’ 순으로 열렸다. 이어 신성동 ‘신통방통 신성동 온마을 축제’(9월 20일), 원신흥동 ‘원신흥동 마을축제’(9월 20일), 진잠동 ‘진잠주민화합 한마당’(9월 20일), 상대동 ‘천년의 상대온(ON)마을축제’(10월 17일), 노은1동 ‘노은한마음문화제’(10월 18일), 구죽동 ‘구죽동한마당축제’(10월 25일) 등이 주민들과 함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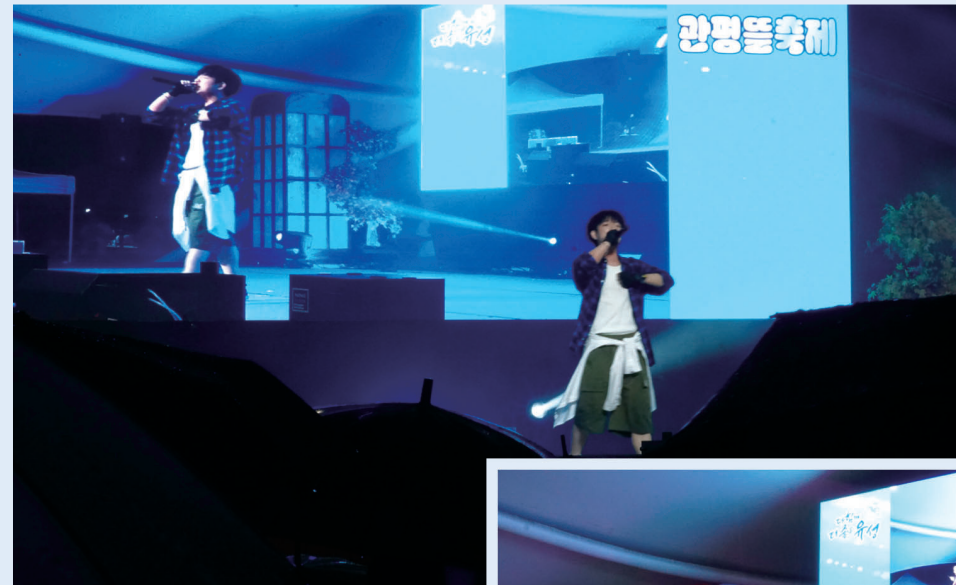


이중 관평뜰축제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으며 마을 축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유성구의 대표적인 주민주도형 마을 축제다. 깊어지는 가을, 제13회 관평뜰축제가 열린다고 하여 지난 9월 13일(토) 동화울수변 공원을 찾았다. 이번 축제는 이웃과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과 화합의 자리로, 축제장에는 흥겨운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먹거리, 풍성한 경품 선물이 방문객을 맞이했다.

이날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장은 인산인해였다. 본 기자도 비 내리는 운치를 즐기면서 갓 튀긴 치킨을 먹으며 일행과 담소를 즐겼다. 한편, 축제장은 혼자도 좋고 가족단위, 친구, 연인들이 도란도란 축제를 즐기기에 딱 좋은 규모였다.

축제는 당일 오후 4시부터 ‘체험 부스’, 관평동 풍물단의 ‘풍물 공연’, ‘마을 주민 노래자랑’, 관평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생들의 ‘라인댄스’, ‘오카리나 공연’을 비롯해 경희대인성태권&파워점핑클럽의 ‘줄넘기 댄스’, 동화중학교 댄스동아리 동그랑땡과 중일고등학교 댄스동아리 JCM의 ‘댄스 공연’, 무궁화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 등이 펼쳐져 축제의 흥을 북돋았다.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박인철 축제추진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축제의 막을 열었다.

축제에 참여하며 가장 좋았던 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다양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가득했다. 마을 주민이자 축제 방문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는지, 축제에 어떤 음식이 어울릴지 등 하나하나 꼼꼼히 계획하고 진행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관평동 마을 축제 추진 위원회가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정성과 노력이 느껴졌다.



축제 현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을 어른신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세대가 한데 어울려 축제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 반가웠다.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활짝 웃는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축제 방문객들의 환한 표정에서 이 축제가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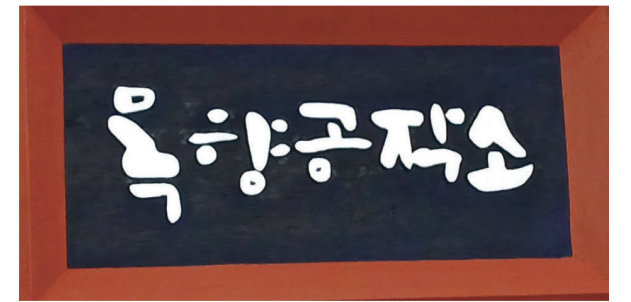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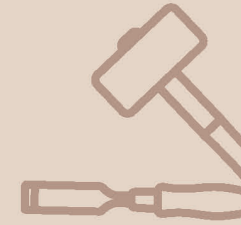
축제장을 찾은 한유찬 학생(18세)은 “지난 제12회 관평들축제 장기자랑에서 랩 공연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평소 취미로 랩을 즐기던 중 장기자랑 참가자 모집 소식을 듣고 도전했는데, 감사하게도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깜짝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감회가 새롭다.”라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무대에 서고 싶다. 매년 관평들축제에 오는데, 해마다 먹거리·볼거리·즐길 거리가 풍성해 늘 즐겁게 참여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유성구 마을 축제는 주민들이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며, 주민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수 있는 문화 축제다. 이번 축제를 통해 세대와 이웃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지역 공동체가 한 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축제가 꾸준히 이어져 더욱 활기찬 유성구가 되기를 바란다.

‘도흔 따라 춤을 추다’ 서각 명인 박병구 작가

유성문화원 황인몽 기자

흥이 있어 좋고,
도흔(刀痕)에 장단 맞춰 춤추는 망치 소리에
어깨춤을 신명 나게 춘다.



목향공작소 현판

’25년 7월의 끝자락 유성구 노은동에 자리한 목향공작소를 방문했다. 서각 명인 박병구 작가의 공간이다. 뜨거운 태양 아래 키 큰 나무들이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해 준다. 작가의 흥이 깃든 준비한 작품들도 환하게 반겨 주었다.

작가의 과거와 현재

박병구 작가는 1961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났다. 공고 졸업 후 군에 입대하여 우리나라 주요 지역에서 재직했다. 대전에서 군위탁생으로 재직하면서 대학을 졸업(경영학 학사)했다. ’15년 4월까지 35여 년 젊은 청춘을 조국수호에 이바지했다. 현재는 한국생활미술협회 이사, 한국명인 작가회 임원, 고마나루 서각회 회장, 한국미술진흥원 전통 공예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전통각자보존회, 한국미술 진흥원, 한국미술협회,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회원, 유성문화원 및 한국생활미술교육원 서각 강사, 현재는 목향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예술분야 주요 수상이력

- 한국생활미술 명인(’22-4호)
- 제28회 대한민국 소품미술대전 최우수 초대작가상(’25.1)
- 대한민국 미래창조대상(’24.4)
- 제18회 한·일소품인테리어 대전 준대상(’23.1)
- 한국생활미술협회 지도자상(’23.3)
- 대한민국 탐리더 대상(’23.4)



명인 나귀 박병구 작가

주요 작가활동

- 초대작가 : 한국생활미술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한국미술진흥원, 열린 미술대전, 한류문화원, 한중부채미술대전, 국제한얼미술대전, 대한민국소품미술대전
- 개인전 : 장이 각자여행전('25.6), 사그람이 품다('24.11) 등 13회
- 단체전 : 미술의 경계를 넘다('25.7), 사제동행기획전('25.4) 등 120여 회

서각을 시작한 동기

군 복무 당시 '93, 4월 어느 날 진주 축석루 주변 기념품 가게 앞에 섰다. 허름하고 남루한 노인이 나무에 새김질과 조각, 인두화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 매료되어 한번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냐?”라고 질문했다. “젊은 군인이 이런 것을 왜 배우나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럼 한번 찾아와 봐.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서각에 입문했다.

직업상 다른 곳으로 전출되어 한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05 청암 선생을 만나 체계적인 서각을 배우기 위해 입문했다. '10년도 진천에 계신 덕현 선생을 만나 목공장비 및 채색, 액자 제작 등을 배우게 되었다. 서울국가문화유산원전수관에서 전통각자 작품을 관람하면서 색다른 각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년 현재 스승 이신 무형유산 제106호 각자장 고원 김각한 선생을 만났다. 매주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전통각법(반각, 정각), 필법, 채법 등 전통각자 전수 중에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서각에 몰입하던 시절과 흥에 겨운 즐거운 시간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각의 깊이에 심취해 열정적으로 작업하며 행복해하는 지금이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작가의 작품세계

재미로 시작한 서각이지만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 서각을 접목한 작품을 주로 한다. 궁궐, 사찰의 현판이나 인물 등 전통적인 느낌을 현대미술의 모든 장르에 예술과 서각을 접목한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통을 거스르지 않는 각법으로 자연과 형상을 담은 입체미를



갖춘다. 서각 작품에서 사람 냄새가 나고, 시골 토담 장독대 처럼 일부러 멋 부리지 않는다. 투박하지만 후광이 비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작가의 성품을 담은 작품세계를 추구한다. 또한 터진 나무 살갓 표면에 사람의 손때가 잠깐 스쳐갔나 싶더니, 물때가 골 깊게 새겨 있다. 차 그릇 실금처럼 깊어가는 세월이 담겨 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체취(體臭)와 손길이 세월의 정감(情感)으로 남아 있는 서각 작품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재료(나무 등)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미술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단순하며 아름답고 감성 있는 서각작품을 갈구(渴求)하고 있다. 흥이 있어 좋고, 도흔(刀痕)에 장단 맞춰 춤추는 망치 소리에 어깨춤을 신명 나게 춘다. 잔잔한 선율을 타듯 즐겁고 행복하게 제2의 인생을 서각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최근 전시회

'25년 6월 9일~15일까지 유성문화원에서 '장이각자 여행전'라는 주제로 개최한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통 각법에 근원으로 두고 자연의 미와 어우러지는 현대 서각전!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서각세상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다. 때문에 현대서각이 주를 이루는 요즘 전통서각의 근원(根源)인 암각화부터 시작된 소통의 문자 역사를 소중히 생각한다. 그 형상을 서각에 적용된 작품을 보여주고 물 흐르듯 유연하다.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운 문자 조형미와 나무 표면을 칼바람이 분다. 스치면 시냇가와 골짜기를 만든다. 자연의 향연이 펼쳐지고 화려하거나 호들갑스럽지 않은 아름다움이 이어진다. 우리 정서에 미와 정신이 가미된 작품을 형상화한 작품 전시회였다.

수강생들과 함께

최근에 유성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로 개설되었다.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통의 맥과 현대 예술을 접목한 서각을 저변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천안 한국생활미술협회 교육원과 고마나루 서각회, 개인 작업실에서 서각을 접해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을 만난다. 체험, 개인 지도를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현재 개인 지도는 취미반을 대상으로 서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가 깊이 내려야 무성하게 자랄 수 있듯이 삶의 경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내면을 단단히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감정과 경험을 작품에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따뜻하게 이끌어 준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업의 중심이 되는 기초를 충실히 다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작가의 꿈

서각을 널리 알리고 싶다. 지금처럼 미디어,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각이란 예술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생활미술의 한 분야로 정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자들을 양성하고 함께 작품을 통해 서각을 알리다 보면 예술세계에서 보편화되는 날이 올 것이다. 서각이 K-문화의 한축을 담당하리라 믿는다. 서각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예술과 비교해 손색없을 정도로 창작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서각 명인으로서의 작가의 결의가 묻어난다. 그의 마음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 영원히 길이 빛나는 나날이 계속되길 기원해 본다.

지식과 사람을 잇는 스토리텔링의 힘! 이가희 박사를 만나다

유성문화원 **황인몽** 기자

66

기술과 사람, 기업과 도시, 교육과 혁신.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매개는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99



대전 유성의 상징인 한빛탑이 있는 대전콘텐츠코리아랩 (대덕대로 480) 2층 사무실을 방문했다.(’25.7.1) 이곳에서 강의도 하며 유성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붓고 있는 이가희박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과 사람을 융합하는 새로운 관점과 이야기를 요구한다. 혁신적인 기술이 넘쳐나는 시대,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국내 최초로 IP 스토리텔링 교육을 체계화하고 ESG 전문 교육가를 양성하며, 현재 AI 기반 디지털혁신 교육을 이끌고 있는 한남대학교 이가희 책임교수이다.(사단법인 도시공동체본부 이사장)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의 시작

본질적으로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소통하며 공감한다. 이박사가 처음 스토리텔링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문학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 이후 교육과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 경험하며 깨달았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교육과 기업 경영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다.



국내 최초 IP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의 혁신과 성과

IP, 즉 지식재산권은 혁신과 창의의 산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IP를 단지 법률적 권리로만 이해한다. 이가희 박사는 국내 최초로 IP 교육을 체계화하며, IP 속에 담긴 이야기 ‘창작자의 철학’, ‘시행착오’, ‘아이디어의 탄생 배경’ 등을 강조했다. IP에 담긴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낼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오래 기억에 남는다. 이처럼 이야기를 입힌 IP는 살아 숨 쉬는 문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실제 IP 스토리텔링교육 사례 및 성과

이박사는 KAIST 지식재산대학원에서 IP 스토리텔링 커리큘럼을 개발했다. 이후 많은 기업과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IP를 매력적인 이야기로 구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다수의 IP가 대중의 관심을 끌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제품과 기술의 이야기를 고객과 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AI 기반 디지털혁신 전략교육의 선도자 역할

현재 한남대에서 책임교수로 진행 중인 ‘AI 기반 디지털혁신전략최고위과정(DIP)’이 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혁신은 기술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에는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DIP 과정은 단순히 AI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삶과 조직의 성장을 이루는지를 다룬다. 창의적 접근과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지향한다. DIP 과정 참여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내용은, AI가 혁신의 끝이 아닌 출발점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AI를 통해 자신의 조직과 사회가 겪는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 또한, AI 기술과 인문적 가치가 결합될 때, 가장 강력한 혁신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AI 기반 디지털혁신전략최고위과정(DIP)



강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도시와 사람, 그리고 사회를 잇는 이야기의 힘

최근 도시공동체본부 이사장으로서 도시재생 분야에도 ‘스토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박사는 “도시는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개발 중심의 접근은 도시 고유의 이야기를 지우게 됩니다. 도시가 지속가능하려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 개선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도시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해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이를 체험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도시와 주민 사이의 애정과 소속감이 회복될 수 있다.

모든 변화의 중심은 결국 ‘진심 어린 스토리’

이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기술과 사람, 기업과 도시, 교육과 혁신. 이 모든 것을 이어주는 매개는 진심 어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이야기를 세상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을 맺었다.

학부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다. 시인이기도 한 이박사는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활화산 같은 존재이다. 그의 열정에 고개 숙여진다. 스토리는 단순한 혁신을 넘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더 큰 변화를 꿈꾸게 한다. 그의 활동이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걸쳐 더욱 풍요로운 가치로 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대전 홍보관 & 꿈돌이하우스 방문기

대전하면 떠오르는 상징은 뭘까? 찾아가보자!

유성문화원 조수진 기자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 백화점 7층에 위치한 대전 홍보관을 찾아가 보았다. 평일 개방은 월~목은 10:30~19:45 / 금,토,일 및 공휴일은 10:30~20:15 까지이다. 단, 백화점 휴점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입구서부터 대전하면 떠오르는 꿈돌이 캐릭터가 맞이하고 있다.





전국 최초 캐릭터 라면인 곰돌이 라면은 쇠고기맛, 해물짬뽕맛 두가지

여러 가지 캐릭터 인형과 의류, 학용품, 마그네틱, 장바구니 등 다양한 용도의 굿즈들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으며 곰돌이라면도 두 종류로 만나볼 수 있다.

포토존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한 가족들이 사진 촬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대전에 둘러볼 만한 관광지와 각종 행사에 관한 안내, 대전을 소개하는 책자들이 비치되어 있어 관광이나 나들이 동선을 계획하기에 유용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전시공간이 있어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할 수도 있다. 25년 8월 한 달간은 온사랑(on love)라는 타이틀 아래 AI, 인공지능이 그려낸 일러스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주제가 사랑이다 보니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이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전시였다.

전시테마는 외부요청이 들어올 때도 있고 홍보관 자체 전시로 진행되기도 하는 등 다채롭게 꾸며진다고 한다.



포토존



전시공간



자리를 이동하여 근처 엑스포 과학공원에 있는 곰돌이 하우스로 향했다.

대전역 앞 1호점에 이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빛탑 앞 물빛광장 바로 앞에 생긴 2호점이다. 운영시간은 하절기(4~11월) 10:00~21:30, 동절기(12~3월) 10:00~17:30 이며 매주 월요일 휴무이다.

이곳 1층은 곰돌이네 라면가게, 2층은 곰돌이네 굿즈가게이다.

곰돌이네 라면가게는 대전 곰돌이 라면을 구매하고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체험형 매장이다. 라면가게를 나오면 외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입구에 곰돌이, 곰순이 캐릭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었다.



굿즈들은 대전 홍보관과 거의 같았지만 일부 거기서 보지 못한 제품들도 보였다. 여기서는 디지털 하이킹을 체험할 수 있고 한빛탑이 내다보이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다.



디지털 하이킹 체험

한빛탑이 내다보이는 포토존

꼬마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영상

이렇게 친근하고 귀여운 캐릭터로 대전을 홍보하며 골렘도시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대전 홍보관과 곰돌이 하우스를 둘러보니 타 지역에서는 보지 못한 ‘도시의 캐릭터’가 있는 대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부듯하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타 지역에서 대전을 찾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전 시민들에게도 나날이 발전 중인 유성은 더욱더 흥미로운 공간이 될 것 같다.



The bibliography

지역과 함께 숨 쉬는 독립서점
책과 문화, 사람이 만나는 곳

유성문화원 임두리 기자



〈The bibliography〉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서점 이상의 가치를 추구한다. 책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머물게 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서점 곳곳에 마련된 사색의 공간은 생각지 못한 사유와 만남을 선물한다.

대전 유성구 어은동, '안녕거리'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노란색 간판이 따뜻하게 반긴다. 청록색과 노란색의 조화에 원목 인테리어가 아늑한 분위기의 이곳은 독립서점 〈The bibliography〉다. 벽면을 가득 채운 월별 행사 달력은 이곳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서점임을 보여준다.

달마다 열리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The bibliography〉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8월 진행된 시네마 클럽에서는 '기쿠지로의 여름밤'을 주제로 영화 감상을 나누었다. 단순한 상영회에 그치지 않고 원작 소설이나 각본, 사운드트랙 등을 함께 다루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 또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으로 서점지기는



지난 6월 열린 '슬기로운 동네생활'을 꼽았다. '안녕마을'을 함께 투어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이 프로그램은 서점이 추구하는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다가오는 9월에는 교환 독서 모임이 예정되어 있다.

책장 한 칸을 빌려 나만의 작은 서점을 운영할 수 있는 '쁘띠 비블리오' 역시 〈The bibliography〉만의 신선한 기획 중 하나이다. 이용자와 서점이 함께 콘텐츠를 나누는 장이 되는 셈이다. 입구에 마련된 팝업 마켓도 눈길을 끈다. 지역 창작자들의 수공예 작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문어사' 야림 작가의 닥나무 섬유 책갈피가 전시 중이다. 작은 창작물이 오가는 풍경은 지역성과 독립출판이 만나는 따뜻한 지점을 만든다.

서점 내 테이블 좌석은 일정 비용을 내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함께 제공되며, 음악 코너에서는 직접 CD를 플레이하거나 책과 어울리는 음악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속 '사유할 공간'을 원하는 이들에게 더없이 특별한 쉼터다.

〈The bibliography〉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이유는 분명하다. 서점지기는 "서점이 주민들의 소통과 연결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구나 편안한 발걸음으로 찾아와 일상의 쉼 공간처럼 머물다 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심히 스쳐 지나간 문장, 일상 속 작은 영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쌓아 올린 모든 자취가 결국 우리의 '참고 문헌'이 된다. 〈The bibliography〉는 그 의미처럼 참고 문헌이 되어, 누군가의 삶과 작업에 영감을 보태는 책방이다. 일상에 쉼이 필요할 때, 이곳에서 잠시 머물러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물건 좀 버려요” 이사할 때마다 우리 부부가 싸우는 소리다. 어떤 때는 나 몰래 쓰레기장에 버린 것을 찾아와서 대판 싸운 기억도 난다. 그 후부터 아내도 그 물건은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장위에 놓아둔 상태로 그대로 놓아두고 산다. 그 물건은 지금부터 57년 전에 월남전에서 귀국할 때 가지고 온 야자수 열매다. 지금은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과일이었다. 내가 그 열매에 집착한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야자수 열매는 나에게 월남에서 함께 전쟁을 한 분신인 것이었다. 지금도 안방 장위에 조금조금 야자수 열매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옆집에 새댁이 우리 집에 와서 하소연을 한다.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옛날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계신다는 것이다. 지금 시대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여도 막무간에 안 내놓으셨다는 것이다. 요양원에 가실 때에도 그 신발을 갖고 가셨다는 것이다. 요양원 서랍에 그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어머님에게 그 신발이 내 고향이요, 내 분신이기 때문이다. 100세 되신 할머니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가서 언제 시집을 오셨냐고 물으니 15살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집오시기 전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고 우물이 어디에 있고 하시면서 신나게 옛날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다. 시집오시고 나서 85년 동안의 이야기는 물으니 모르신다는 것이다. 심지어 생일잔치라고 해서 아들 손주 증손주까지 다 왔는데 못 알아보시는 것이다.

우리 유성문화원 노인일자리 유성이합창단은 지금 유행하는 대중가요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는 안 한다. 옛날 가요나 동요 또는 가곡을 선곡해서 부르면 휠체어에 타고 계신 분도 노래에 맞추어 반응을 보이신다. 마지막 순서에는 옛날 동요를 합창 단원들과 함께 하면 본인들도 합창단원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신나게 하신다. 언젠가는 남자 어르신 한 분이 노래 부르는 순간에 울고 계시는 것을 간병인이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노래가 그분을 치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름 한 달을 휴가를 보내면서 모두들 힘들었다고 한다. 이제는 합창을 하는 것이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우리의 합창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잠시나마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옛날을 생각나게 하였다. 끝나고 나올 때에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뵙자고 하면 모두 손을 흔들면서 꼭 오세요” 한다. 파란 가을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분들의 마음에도 멋진 가을이 들어와 계시면 좋겠다.

2025년 9월 4일

유성문화원 유성이합창단 지휘자 강성완

2025년 유성문화원 문화강좌 시간표

요일	프로그램명	강사	강의시간	수강료(3개월)	강의실(층)
월	김정선의 노래교실	김정선	10:00~12:00	60,000원	다목적실(2)
	한국무용(월요)	이현숙	10:00~12:00	60,000원	예체능실(4)
	가락장구장단	이춘옥	10:00~12:00	57,000원	전통문화실(4)
	한문서예(월요)	구경희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여섯줄 클래식 기타교실	홍소림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경기민요	이순임	13:00~15:00	60,000원	전통문화실(4)
	어반스케치	신지혜	13:00~15:00	75,000원	취미교실(3)
화	청풍명월	윤민숙	10:00~12:00	69,000원	예체능실(4)
	한글서예	윤병건	10:00~12:00	75,000원	취미교실(3)
	포크통기타 초급	이석진	09:30~11: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고급(핑거스타일)		11:00~13:00	90,000원	세미나실(3)
	포크통기타 중급		14:00~16:00	90,000원	세미나실(3)
	문인화	박경학	13:00~15:00	57,000원	취미교실(3)
	진도북춤	김원경	13:00~15:00	69,000원	예체능실(4)
수	시조창	박학미	15:30~17:30	60,000원	전통문화실(4)
	김숙자류입춤	김연의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뭇생&수채화	김해숙	10:00~12:00	90,000원	취미교실(3)
	경서도 민요와 장구	오현숙	10:00~12:00	69,000원	전통문화실(4)
	오카리나	한연호	13:00~15:00	90,000원	라온마실(3)
	판소리	지유진	13:00~15:00	69,000원	전통문화실(4)
	김소원 퓨전장구	김소원	10:00~12:00	90,000원	전통문화실(4)
목	기초부터 시작하는 유화	최윤정	10:00~12:00	120,000원	취미교실(3)
	우쿨렐레	백선경	10:00~12:00	90,000원	라온마실(3)
	우리춤체조	최민희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유화	송채례	13:00~15:00	120,000원	취미교실(3)
	댄스스포츠(월초)	박경민	13:00~15:00	105,000원	예체능실(4)
	댄스스포츠 라틴(초/중급)	이영린	18:30~20:30	90,000원	예체능실(4)
	가야금	권정옥	18:30~20:30	90,000원	전통문화실(4)
금	대금과 단소	이재천	18:30~20:30	69,000원	라온마실(3)
	태평무(오전)	강소정	10:00~12:00	69,000원	예체능실(4)
	한국화	김진순	10:00~12:00	57,000원	취미교실(3)
	태평무(오후)	강소정	13:00~15:00	90,000원	예체능실(4)
	나무에 감성을 입히다(서각)	박병구	13:00~15:00	90,000원	취미교실(3)
	토탈 캘리그래피	양 영	15:30~17:30	90,000원	취미교실(3)
	가야금병창	복선영	15:30~17:30	75,000원	전통문화실(4)
토	토요해금	정유라	10:00~12:00	69,000원	라온마실(3)
	한문서예(토요)	구경희	10:00~12:00	57,000원	취미교실(3)
	댄스스포츠 라틴(고급)	이영린	10:00~12:00	90,000원	예체능실(4)
	팬플루트(오전)	박상봉	10:00~12:00	90,000원	세미나실(3)
	팬플루트(오후)		12:40~14:40	90,000원	세미나실(3)
	유성농요	김숙희	12:40~14:40	60,000원	전통문화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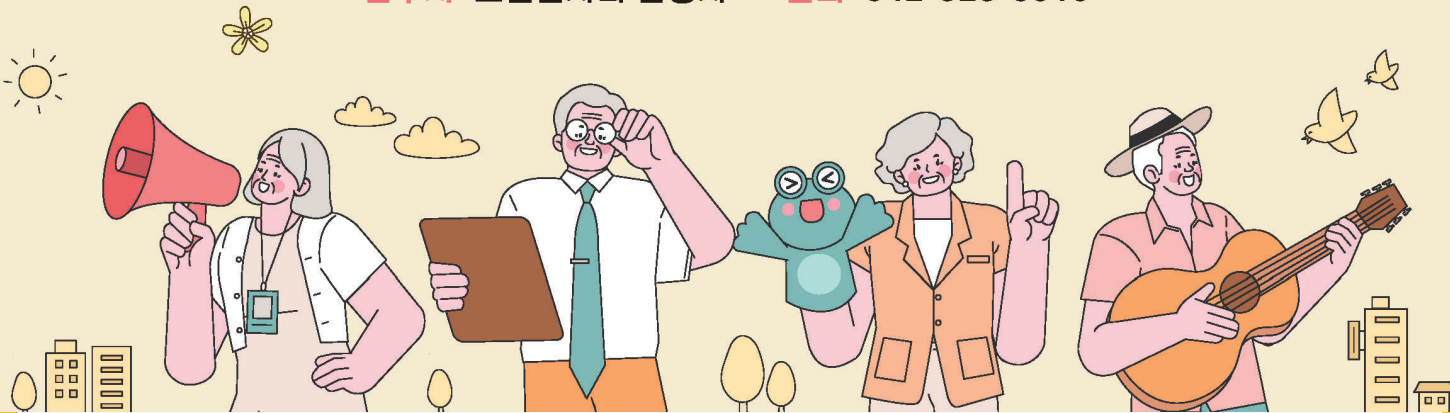
* 하반기 수강생 등록 상황에 따라, 강좌 개설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 상담 접수

접수처 노인일자리 담당자 문의 042-823-3916



유성이알림단

연극, 손인형, 그림자인형

유성지역에 관련된 설화, 구전
동화 및 역사적 인물, 사건을
인형극 및 연극으로 지역사회
알리는 공연활동

유성이전통단

전통놀이 활동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시설,
보육시설 등으로 전통놀이체험
및 전수하는 활동

유성이행복단

악 단

노래(트로트), 전통무용, 댄스,
다양한 악기 등으로 구성된
악단으로서 장기요양 시설로
방문하여 활동

유성이합창단

합 창

다양한 지역행사 및 장기요양
시설 등으로 합창공연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공감대 형성
하는 활동

문화재지킴단

비지정문화재 지킴

유성구 관내 및 시·도 기관과
협조하여 비지정문화재 청결
및 정보수집하여 보존 알리는
활동



유성문화원 시설 대관 안내



층	장소	대관료	사용시간	초과 시간당	기타	냉·난방
1층	전시실 112㎡(약35평)	27만원(9시~17시)	주간(월·화·수·목) 주말(금·토·일)		• 냉/난방, 조명 무료 • 전시 종료일은 5시까지 철거 완료 요망	무료
2층	다목적실 무대/좌석 80석/ 자유석 20석	36만원 53만원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7시 종일 09시~17시		• 소형그랜드피아노 5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 빔프로젝터, 음향, 무선마이크(3) (노트북 사용자 지참)	
3층	세미나실 좌석 50석 라운지실 무대/좌석 50석	15만원 16만원	3시간 기준	2만원	• 유선마이크(1) • 빔프로젝터(노트북 사용자 지참) • 유선마이크(1) • 이동식 빔프로젝터 3만원 (노트북 사용자 지참) • 소형피아노 3만원 (피아노 조율비 사용자 부담)	
4층	전통문화실 예체능실	13만원 13만원			음향 없음 음향 무료	



YUSEONG Cultural Center

유성문화원 표지 캘리협조
유성문화원 캘리그래피 강사 양영

발 행 인 이재웅
발 행 일 2025년 9월
등록번호 대전 라 01023
발 행 처 유성문화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전 화 042)823-3915~6
팩 스 042)823-3917
홈페이지 www.yuseong.or.kr

문화유성

2025
Vol.233
www.yuseong.or.kr

 유성문화원
www.yuseong.or.kr

34167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화원로 46(궁동)
Tel. 042-823-3915~6 Fax.042-823-3917